

■ 숙명여대 李慶淑 총장

“정보화사회는 여성에게 유리”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 / 본지 편집위원) ■ 일시 : 12월 3일 오후 3시 ■ 장소 : 숙명여대 총장실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은 인류 삶의 모습과 정신적 가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수단으로서 생활의 편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 교육과 사회복지, 예술문화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은 꺼지지 않는 불(火)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통해 기술발달을 이루고 나눌수록 세상이 밝아지며, 이용 여

하에 따라 득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고 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발전에 중요한 촉매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무엇보다 인간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선한 의지와 책임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숙명여자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기본 운영방침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일제 치하 수난기인 1906년 고종 황실 순헌황후(임황귀비)께서 여성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국애족의 뜻으로 설립하신 국내 최초의 민족여성 사학입니다. 숙명의 창학은 민족 여성교육의 효시였고, 이를 통해 여성의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여성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1백년 가까운 역사와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숙명은 정숙·현명·정대의 교훈 아래 사회가 요청하는 여성 전문인력과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 숙대의 21세기 비전은 무엇입니까?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비전은...

21세기 여성지도자 양성의 산실로

우리 대학은 1995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숙명여대는 대학 정보화와 IT교육 환경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의 인재들을 정보기술 마인드를 갖춘 각 분야의 전문 인재로 키우고 Sookmyung University Network 밸리를 만들어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21세기 IT산업 고급인력 육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숙명 제2 창학을 선언하고 21세기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창학 1백주년이 되는 2006년까지 세계 최상의 명문여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세워 21세기 여성 지도자 양성의 산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과 전통, 교육과 문화예술이 조화된 캠퍼스를 조성하며 디지털대학과 지식경영대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숙대는 특히 대학 정보화와 IT 교육환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인재들을 정보기술 마인드를 갖춘 각 분야의 전문인재들로 키우고,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같은 SUN(Sookmyung University Network)벨리를 만들어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21세기 IT산업 고급인력 육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이버 교육체제를 확장 구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넓히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이 아직 여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학문분야로 여기는 우리의 현실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우수 학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또한 여성인력 활용에 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90년 초까지 50%를 넘던 이공계 지원자 비율이 2001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응시자의 29.5%에 불과한 25만명만이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입학정원이 31만명인 이공계는 총체적인 정원 미달상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들은 첨단 과학기술시대에 필요한 학문을 선호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공계보다 손쉬운 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여성의 잠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정보화사회는 예전에 비해 여성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끈기·유연한 사고·풍부한 상상력 등은 정보기술·생명공학·초미세과학과 같은 미래 과학기술 연구에서 요구하는 장점들입니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불식시키며 금녀의 분야에 많은 여성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성이 가진 뛰어난 능력과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하는 체계적인 여성인력 활용 국가발전



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재능·잠재력 개발 중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학은 여자대학으로서 여성의 재능과 잠재력 개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의 여건에 적합하고 여성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특성화시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해 줄 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될 것이며, 준비된 대학에서 수준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뛰어난 전문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인해서 순수학문분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숙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대학의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학부제를 시행하면서 인기과목, 선호과목이 뚜렷해지고 상대적으로 기초학문분야에 학생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성의 기본이 되고 기초지식이 되는 학문이 계속 외면당하도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할 때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대의 경우 올해 교수학습센터를 신설하고 이 곳에서 효율적인 교수법을 연구, 개발하며 학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방법을 지도해 주는 등 교수·학습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연구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초학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들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평화와 삶의 질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이른바 반과학운동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과학기술과 인문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최근 미국에서 인간배아 복제가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예상된다든 소식도 있었는데,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소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종교 없는 과학이나 과학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과학기술과 인문과학의 상호 학술적 교류가 활성화될 때,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총장님은 학생들에게 21C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통해 ‘VIP PCS’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뜻입니까?

VIP PCS는 세계를 이끄는 여성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과 조건을 함축한 말입니다. V(Vision)는 장기적인 인생설계도라 할 수 있는 비전을 세워야 하고, I(Integrity)는 통진성으로 정직·투명·신뢰의 덕목을 갖춘 성품, P(Professionalism)는 전문성, 즉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유의 전문성이 없는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P(Positive thinking)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리더의 생각에 따라 조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C(Communication skill)는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에 이해와 배려, 경청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며, S(Service mind)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모든 일에 숭선수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체



계적인 준비와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할 때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 리더로 성장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총장께서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美 시우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및 비교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11대)과 유엔 한국대표단 고문(84년), 외무부(88년) 및 통일원(90년) 지문위원 등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시게 된 것은 정치학을 전공하신 것과 연관이 깊다 하겠습니까. 정치학을 택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만나 사귀는 것과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으며 책에서 소개되는 세계 여러 곳들을 동경하며 세계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세계 각지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요. 이러한 꿈을 갖고 대학진학을 고민하면서 당시 숙명여대가 파격적으로 제시하였던 특선장학제도(전액 장학금과 유학 후 교수임용)에 관심을 가지고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기술력은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값진 성과들을 창출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과학기술 발전과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⑤7